

그이께서 사랑하시는 그림

주체 93(2004)년 10 월 21 일 새벽 2 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과 담화를 나누고 계시었다.

자정이 훨씬 지났으므로 일군들은 그이께서 휴식하실것을 간청드렸다.

그러나 그이께서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에 대한 가르치심을 주고계시었다. 그이의 부르심을 받고 한 일군이 방에 들어섰다.

그이께서는 그 일군을 반기시며 그에게 이 그림들이 무엇을 보여주는가고 물으시었다. 그이께 그는 전날에 제출된 군사작품집(항일혁명전쟁)을 보았으며 정말 좋은 책이라고 자기의 의견을 말씀드렸다. 계속하여 그 일군은 백두산을 배경으로 활짝핀 진달래속의 백두산밀영을 형상한 책표지가 책의 내용과 잘 어울린다고 말씀드렸다.

잠시 생각에 잠겨시던 그이께서는 연필을 드시고 울창한 천고밀림속의 장엄한 산풍경을 그리시었다.

그리시고 나서 활달한 필체로 《혁명의 성산 백두산. 김정일》이라고 쓰시었다.

일군을 바라보시며 그이께서는 나는 이 그림을 제일 좋아한다고 말씀하시었다.

일군들은 백두산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가시려는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고 커다란 감격에 휩싸였다.